

여수시 올해 일자리 1만6000개 창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공식 지역고용률 69% 달성 목표 125개 세부 실천과제 추진

여수시가 올해 일자리 1만5913개 창출, 고용률 69% 달성을 목표로 한 2024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했다. 이는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지난해 분야별 일자리 1만5248개(목표 대비

122%) 창출 및 고용률 69% 달성과 올해 정부경제정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의 둔화 전망 등을 반영해 설정했다. 시는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화합 일자리 행정혁신 ▲미래산업 육성과 기술인재 일자리 창출 ▲일자리 균형 성장 ▲시민중심 일자리 복지도시 구현 등 4대 핵심전략을 세워 30개 부서가 125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년도와 달리 참여부서 6개가 증가해 8개 실천 과제가 추가됐으며, 2026여수세계박람회, 투자유치, 미래산업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기

대된다. 한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 활성화 정책인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에 따라 매년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김태환 여수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여수형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전략산업 지원 등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할 뿐 아니라 청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시민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한전MCS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

보성군이 최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한전MCS(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전기검침과 요금제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전MCS 직원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될 가구 및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 등을 발견하면 즉시 군 희망복지팀에 지원 요청, 신속한 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상호 협력했다. 또 보성군은 한전MCS(주) 직원 8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지역주민의 안부 확인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신고 요령 및 활동 수칙 교육과 서비스 연계 등 적극 지

원할 예정이다. 윤정희 한전MCS 보성지점장은 "전기검침 업무 외에도 위기가구 발굴과 안부 확인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복지 육구에 귀 기울이고 든든한 생활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지원체계가 모두가 행복한 보성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흥군, 독일·프랑스 찾아 글로벌 우주산업 벤치마킹

우주항공 시설 견학·협력 논의 농수산물 수출협약·관측 행사도

우주발사체 특구를 추진하는 고흥군이 유럽 우주산업 선진지를 찾았다. 고흥군은 오는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의 독일·프랑스 등 선진지를 방문한다고 7일 밝혔다. 2일부터 5일까지는 유럽 우주산업의 선두주자인 프랑스를 찾았다. 공 군수와 전남도, 고흥군 관계 공무원들은 에어로스코피아,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툴루즈센터, 시티오브스페이스, 스테이션-F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사체 특구를 추진하는 고흥을 포함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영민 고흥군수 등이 지난 3일(현지 시각)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고흥군 제공>

자와 면담하며 고흥군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했다. 4일에는 미국 캐나다 우주센터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우주박물관인 툴루즈 시티오브스페이스를 찾았다. 1997년 개관한 시티오브스페이스는 총면적 3만 5000㎡로 우주정거장 미르, 아리안5 로켓, 소우즈 우주선 모형 등 전시시설과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췄다. 한 해 4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다. 공 군수는 이날 각종 전시시설과 플라네타륨, 루나익스플로러, 아이맥스 체험·상영관 등을 살펴보고 고흥군의 우주 관련 견학 교육체험 시설인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에 접목하는 방안을 찾았다. 다음 날에는 파리로 발걸음을 옮겨 르브르제 항

공우박물관과 '유럽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창업육성기관 '스테이션 F'를 방문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파리지소장의 안내로 시설 시찰과 기업 면담을 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선단 내에 스테이션 F와 같은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 군수를 포함한 대표단은 지난 1일 독일 쾰른에서 진행한 새공도시 교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5일까지 우주산업 견학을 마치고, 6일부터 코르시카섬으로 이동해 농수산물 수출협약과 관측 행사를 진행하고 8일 해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연계한 우주테마파크를 완성해 고흥군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우주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광양시 올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54곳 지정

중량제봉투 등 인센티브

광양시가 2024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54곳을 지정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업소별 품목 가격이 지역 가격 평균 이하고 위생 청결 기준 등을 충족하는 업소 중 평가를 통해 지정한다. 총 22개 업체가 신규 신청을 했으며, 시는 현지 실사 및 심사를 거쳐 적합한 15개 업소를 착한가

격업소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된 업소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와 같은 소모품 꾸러미를 지원하며, 광양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허정량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 지원, SNS 홍보 확대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순천시 '챗봇' 지방세 24시간 상담 서비스 호응

디지털 기술 활용 납세 편의의 도모 순천시가 운영하는 지방세 '챗봇' 24시간 상담이 호응을 얻고 있다. 순천시는 지방세 '챗봇'을 통해 납세자 궁금증 해소와 납부 편의성을 위해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상담 '위택스봇'은 지방세 납부 시기, 납부 방법, 감면 정보 등을 안내하고 상담 해준다. 또한 지방세에 관한 다양한 소식, 혜택과 정보 등을 메시지로 제공(행정안전부)하는 디지털 지방세

상담플랫폼이다. 특히 '위택스봇'은 지방세 중에서 문의 빈도가 높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6개 세목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질문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는 개인별 맞춤형 안내를 통해 혜택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지방세 상담 위택스봇 채널을 활용하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에 접속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방세 고지서 내 '위택스봇' QR코드 접속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여수시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수상

지속가능 발전부문 대상

해양관광휴양도시 여수시(시장 정기명·오른쪽)가 '2024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을 받았다. 여수시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9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 발전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상식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했다. 뛰어난 행정전략과 과감한 도전으로 우수한 성과와 최고의 경영 철학을 가진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내걸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다. 여수문 르네상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생물자원 활용 산업기술·수소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한 미래 신산업 발굴, 국제컨벤션 센터 건립 등 마이



스(행사)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여수문화재단설립을 통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추진 등 문화도시 조성,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도 크게 평가됐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가림당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림당